서울특별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촉구 결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3. 8. 30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18. 이도희 의원 외 13명

나. 상정의결

- 제31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30.)
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대표발의자 이도희 의원)

가. 주문

강남구의회는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국제교류복합지구외)에 대해 국토교통부 「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·해제 가이드라인」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정 재검토 및 해제를 강력히 촉구함.

나. 제안이유

○ 투기성 거래 억제를 위해 시행돼온 토지거래허가제가 구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, 강남구 삼성 · 청담 · 대치동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연장되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음.

○ 2020년 지정 당시에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으나,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· 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한 바 있음. ’행정동, 법정동 등 행정경계, 개발사업구역 등 지역여건, 도

로 · 하천 등 물리적 특성, 생활권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, 필지별로 고시'하도록 기준이 세분화됨.

○ 이에 강남구의회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검토 및 해제할 것을 촉구함.

다. 이송처

○ 서울특별시

3. 질의 및 답변 요지 : "생략"

4. 토론 요지: "없음"

5. 심사 결과: "원안가결"